

고로 보는 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선집중

점자 여권, 점자 표기 활성화의 신호탄 되길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점역교정사를 소개합니다.

인 터 뷰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꽃,
알파인 스키 양재림 선수!

포 커 스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배리어프리 연극 '안네의 일기' 공연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현충일

04 | 시선집중 - 점자 여권, 점자 표기 활성화의 신호탄 되길 / 임경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점역교정사를 소개합니다.

08 | 인터뷰 -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꽃, 알파인 스키 양재립 선수!

10 | 포커스 -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배리어프리 연극 ‘안네의 일기’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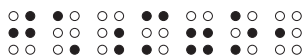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원미동 사람들’을 읽고 / 김은정(시각1급_광주광역시 남구)

13 | 월드 리포트 - 영국의 시각장애인 치어리더, 스테파니! - 14년 동안 시각장애인 주인 곁을 지킨 말

14 | 뉴스앨범 -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아동 생존수영교실! - 2017년 제1회 요리경연대회 실시! - 2017년 제9회 보행지도사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 토토를 원데이교실 5월 ‘자녀와 함께하는 베이킹스쿨’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함께 여행을 가게 될 때

현충일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현충일

일
기
7월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악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악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시, 지, 치, 씨, 피] 다음에 악자 '영'이 올 때는 '으'로 바뀐다.



점자 여권, 점자 표기 활성화의 신호탄 되길

임경역(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

시각장애를 입게 되면 겪게 되는 가장 큰 불편에는 이동상의 불편과 정보 접근상의 불편이 있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단연 정보 접근의 문제라 주장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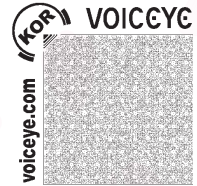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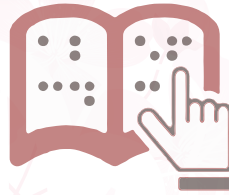
지난 4월 20일부터 외교부에서 ‘점자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주승용 국회의원이 여권법 일부 개정을 통해 9조 2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 주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점자여권 발급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은 전자 비자를 신청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하려 할 때 시각장애인들은 일일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었던 여권 정보를 이제는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핵심 정보인 여권 번호와 발급일, 만료일이 영문 이름과 함께 점자 여권에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자 여권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세계 최초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복지’에 있어서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바빴고 흉내만 내도 고마워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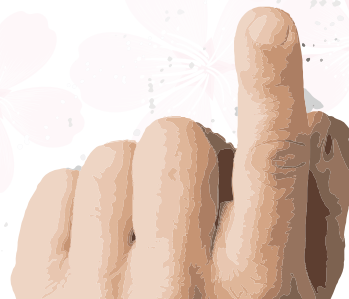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점자 여권 관련 규정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점자 여권을 발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조항은 있으나 법 시행 주체에 의해 사문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부담이 돼서 임의 조항으로 완화되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점자 여권과 관련된 조항은 임의



조항임에도 외교부가 적극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 사례가 바로 약사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남용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69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 사항) 1항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점자 표기가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 점자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또 공직선거법 65조 4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라 하여 언뜻 보면 의무 규정인 듯 보이나, 실상은 이어 나오는 내장 즉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여 점자 제작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임의 조항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 않을 길’도 열어 놓은 것인 반면, ‘할 수 있는 길’ 또한 터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임의 조항마저 없다면 아예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 다행히 지난 4월 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전상비의약품 등에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점자법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점자 여권’의 등장이 점자 표기 활성화에 신호탄이 되길 빌어 본다.



시각장애인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점역교정사를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점역교정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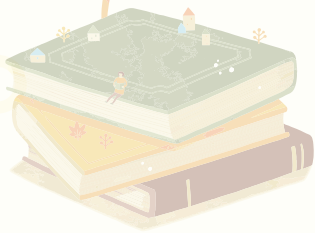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이용해 책을 읽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사람인
점역교정사에 대해 알아보까요?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판기,
타자기, 컴퓨터 점자 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점역교정사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인데요.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을 전문적으로 점역하고
교정하는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역교정사는 20세 이상의 고졸 이상 학력자 또는 점역·교정업무 경력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데요. 1급, 2급, 3급의 세 급수가 존재합니다.





3급은 20세 이상의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가 국어 과목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2급과 1급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4년 이상의 경력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은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 1 과목, 1급은 국어, 영어를 포함한 나머지 1과목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역교정사 시험의 검정 방법은 필기와 점역실기, 교정실기가 있는데요. 필기는 3급 자격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점자상식분야를 검정하고, 점역실기는 일반 글을 점자로 옮기는 방법으로 점역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입니다. 교정실기는 답안 작성 시 점자로 오기된 부분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 점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점역교정사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하게 되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 소지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단체 등에서 점역교정 업무 담당자로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꽃, 알파인 스키 양재림 선수!

2018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릴
패럴림픽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 중인
알파인 스키의 양재림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으로 보는 세상 독자들에게 알파인 스키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파인 스키는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발전한 스키의 한 종류로서 가파른 경사면에 기문을 쫓아 두고 그 기문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 알파인 스키의 경우 선수가 기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러너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가이드 러너는 헬멧에 부착된 블루투스 무선 통신장치를 이용해 선수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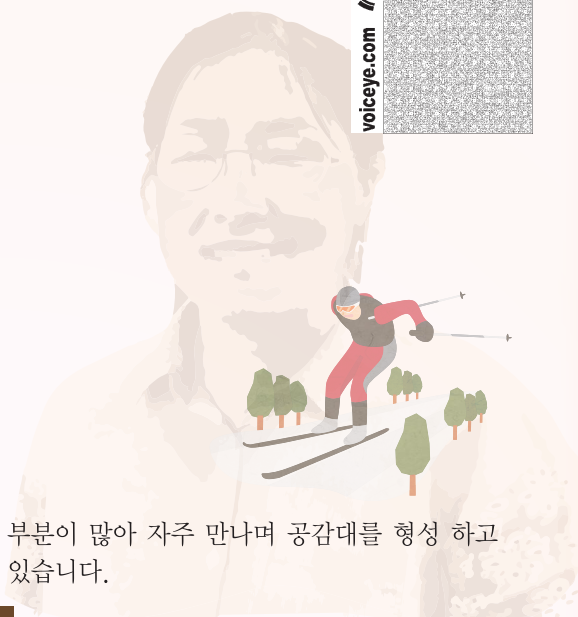
알파인 스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숙아 망막증으로 인해 선천적 저시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스키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연히 대한장애인스키협회에 계신 분께 제안을 받고 본격적으로 스키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계신데, 최근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계신가요?

지난 2016년 1월 대회에 출전했다가 무릎 뼈를 골절 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해 11월까지 부상에 대한 재활을 마친 후 11월부터 3월까지 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 다쳤던 부위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재발하면서 대회나 시합을 나갈 수 없어 다른 외국 선수들에 비해 감각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자세 교정 운동을 위주로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서 경기에 대한 감각과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치러졌던 평창 테스트 이벤트가 훈련 방향이나 전략에 있어 양재림 선수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번 테스트이벤트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때 치러질 실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알파인 스키는 코스를 잘 파악해야 빠른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 이벤트가 코스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외국의 경쟁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기록차이를 살피고 훈련 시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이벤트 후에도 일주일 정도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경기에 대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양재림 선수와 고운소리 가이드러너는 함께 광고 촬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고운소리 가이드러너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고운소리 가이드러너는 평창까지 함께하기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가이드러너와 선수는 상호간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 이외의 시간에도 자주 만나며 서로의 일상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운소리 가이드러너와는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등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아 자주 만나며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선수로써 국내의 현 상황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확정된 이후 나라에서 최대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가이더러너와 선수가 10년 이상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현 국내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수로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테스트이벤트를 치르고 나서 욕심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르게 되어 있을테니까요.

또 경기 이외의 바람이 있다면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때는 응원과 함성으로 꽉 찼던 경기장이 패럴림픽 때는 텅 비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배리어프리 연극 ‘안네의 일기’ 공연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2017년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연극제는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소향시어터, KNN시어터, 광안리일대 등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유희, 해양, 축제〉: 물의 도시 부산에서 즐기는 봄의 축제,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극제에는 멕시코, 그리스, 일본, 미국,
콜롬비아, 한국 총 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극제에서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연극을 연출해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애를 없애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
었습니다.

이번에 공연된 ‘안네의 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네의 일기’를 각색한 것으로 암울했던 나치 치하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안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넌버벌(대사가 없는 연극)로 진행된 ‘안네의 일기’ 국적·연령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들도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글 해설 자막 및 실시간 음성 해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은 “축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같이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도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문화의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원미동 사람들’을 읽고

김은정(시각1급_광주광역시 남구)



[1편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전세를 전전하는데 지쳐 전세로 구입가능한 원미동의 연립주택으로 이사 오는 은혜네 집 이야기인데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이사 트럭 위에서 아내와 함께 겨울바람을 가르며 영등포를 거쳐 개봉을 지나 비로소 서울의 경계선에 다다라서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말을 무슨 음모쯤으로 여기는 은혜 아빠에게는 가나안 땅으로라는 어머니의 축복의 말이나 무릉도원일지 모른다는 아내의 희망의 말은 들리지 않고, 그저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약간의 자긍심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 아빠가 품었을 열등의식과 소외가 참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2편 불씨] 실직 후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연구원이 되어 외판원으로 나섰으나 입을 떼지 못해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슈퍼맨의 아빠는 무작정 다다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포터에게 기대 없이 실습대상으로 상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뜻밖에 그에게 귀 기울여주며 촛대를 구입해 주기까지 하는데, 시골지주였던 포터 또한 그와 다르지 않게 좌절된 꿈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가장이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었기를 바라게 되더군요.

[3편 마지막 땅] 머슴부터 시작해 공들여 마련한 땅을 보람 없는 자식농사에 다 쏟아 부었던 강노인이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타박에 내놓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땅은 농군이 품은 땅에 대한 경의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 내게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은유가 아니었을까요.

[4편 원미동 시인] 여덟 살 난 어린 소녀의 눈으로 비춰지는 원미동시인 몽달 씨는 주민들로부터 정신나간사람으로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시 노트를 들고 다니는 순수한 시인일 뿐이다. 그런 그가 이유 없이 폭행당할 때 외면하는 진반장이나 동네사람들에게서 참 차가운 세상이란 느낌을 받았으나 그랬던 진반장에게 조금의 원망도 품을 줄 모르는 순박한 몽달 씨는 어떤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지 궁금해지더군요.

[5편 한 마리의 나그네 쥐]에서는 우리가 이웃의 소외와 고통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타자의 고난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비겁함까지 가진 잔인함도 갖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편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한다]에 다시 1편의 은혜네가 등장하는데, 서울을 떠나 생성과 소멸의 도시로 들어올 때 품었던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약간의 자긍심마저 은혜 아빠에게서 차츰 빛을 잃어가고 끊임없는 집수리에 지쳐가던 중 욕실 수리 때 만난 임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 역시 자신이 불만을 품어왔던 이세상의 불합리의 일부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7편 방울새]에 등장하는 이혼녀와 옥바라지 하는 여인에게서는 외로움을 철저히 관통하면서도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8편 찾집 여자]에서 오래도록 잊고 살아가는 예술혼을 일깨워주는 여자를 뒤늦게 만나 사랑에 빠지는 행복사진관 엄 씨의 슬픔을 보며 연민 또한 사랑의 한 모습일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9편 일용할 양식]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출해질 수 있으며 얼마만큼 냉혹해질 수 있는지 조금은 섬뜩해지기도 했습니다.

[10편 지하 생활자]에게는 화장실사용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본 욕구마저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궁하게 몰아가는 집주인이나 월급을 올려주지 못해 파업을 하게 만드는 사장이나, 본처에게 시달려야하고 빚에 시달려야하는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남루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이웃임을 동정하는 관용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11편 한계령] 어린 시절 친구의 뜻밖의 연락을 받고서 주인공은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오빠의 당당했던 모습과 그 시절로부터 멀리와 버린 지금의 지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삶의 질곡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새삼 생각해보았습니다.

영국의 시각장애인 치어리더, 스테파니!

피라미드(인간 탑 쌓기) 등 대회 준비에 한창

영국 패러치어(paracheer team)의 일원인 스테파니는 시각장애인 치어리더입니다. 패러치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경쟁하는 치어리더 선수권대회인데요. 공중점프, 텀블링에 피라미드(인간 탑 쌓기) 등 고난도 동작을 척척 해보이며 스테파니도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스테파니의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상태로 거리 감각이 없는 상태이며 오른쪽 눈은 팔을 뻗었을 때 거리 정도는 보이지만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스테파니는 패러치어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데서 오는 자신감을 얻고, 치어리더로써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14년 동안 시각장애인 주인 곁을 지킨 말

안내견보다도 길을 잘 안내하는 ‘말(馬)’



미국의 시각장애인 여성 에디 씨에게는 안내견보다도 길을 잘 안내하고 주인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름 아닌 말인데요. 최근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말을 위해 주인 에디 씨는 노후 대비 퇴직금으로 마련해두었던 3천여 만 원을 말의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정성을 알았는지 말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에디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말과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니까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GKL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시각장애아동 생존수영교실의 첫 수업 진행

GKL 사회복지재단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 웰빙스포츠 센터에서 GKL 사회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아동 생존수영교실의 첫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생존수영교실은 한빛맹학교 유치부(4-7세)를 대상으로 5, 6, 7월 총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생존수영교실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아동들은 물에 대한 적응, 발차기, 보조기구를 이용한 영법, 수중장애물통과 등의 수업을 통해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2017년 제1회 요리경연대회 실시!

지난 5월 2일과 5월 12일에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훈련실에서는 1기 요리교실 12회기의 마지막시간으로 2017년 제1회 요리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초급반과 중급반 교육생들은 자신이 정한 요리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급반은 돼지고기를 활용 하여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중급반은 닭고기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교육생 스스로 레시피를 정하여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급반은 돈까스를 만든 김민지 님이 우승을 차지 하였고, 중급반은 매운 닭다리조림을 만든 김경란 님이 우승하셨습니다.





2017년 제9회 보행지도사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5월 20일, 2017년 제9회 보행지도사 필기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독립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방법을 교육하는 사람인데요. 이 날 필기시험에는 87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는데요. 46명의 수험생이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실기시험은 오는 10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토토즐 원데이교실 5월 '자녀와 함께하는 베이킹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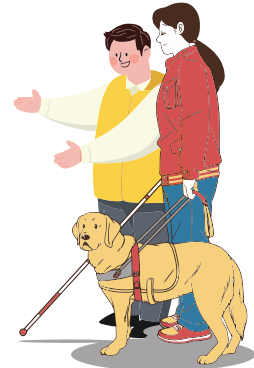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는 '토토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원데이교실 프로그램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각장애인 부모와 자녀 12 명을 대상으로 13일, 27일에 '자녀와 함께하는 베이킹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시각장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초콜릿과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 부모와 자녀 들은 "평소 해보지 못했던 베이킹을 직접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이었고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게 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견학을 가게 될 때, 또는 나들이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정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함께 산에 간다고 하면 산행도우미 역할뿐 아니라 '앞쪽으로는 봉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이며, 무슨 꽃이 피었고...'하면서 산의 경치를 설명해주고 새로 돋은 나뭇잎과 꽃잎을 살짝 만져볼 수 있게 해주면, 시각장애인이 산행하는데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군요", "진달래가 새로 피었네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라든가 함께 자갈을 주워 돌탑을 쌓는 경험도 재미있겠죠.



Tip. 요즈음 주요관광지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여 관광도우미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로 하세요.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신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6월 203호

발행일 2017년 6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